

「컨벤션센터」有感



尹興烈
(치과의사협회장)

컨벤션센터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97년 9월에 열리는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를
서울로 유치해
그 준비에 한창이다.
과학의 세계화를 외치는 마당에
빈약한 국제회의장 시설을 보면
착잡하기만 하다.

나는 1973년 오슬로대학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오랜만에 세계 치과의사연맹 총회가 열리는 미국 시카고로 75년 가을에 여행을 갔다. 처음 참석하는 세계대회라는 흥분과 시카고 가을의 독특한 쌀쌀한 날씨와 냄새, 고층건물의 스카이 라인 등과 함께 대회규모는 기대 이상이었다.

각종 학술강연, 포스터전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전시, 각국 대표사회의 등 어느 모임에 참석해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느냐를 선택하는 즐거움도 대단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한사람으로서 시카고에 있는 미국치과의사회 본부를 방문하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치과의사회 본부에 기자재실험실이 있고 임직원을 위한 바와 식당 외에도 기본적 회의실, 도서실 규모에 우리나라 치과의사협회의 2층 회관을 생각하며 느끼는 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시작된 나의 국제회의 참석여정은 78년에 다시 뉴욕 대 유학으로 더욱 자주 다른 나라의 대소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자라게 되었다.

진흥센터 세워 숨통열어

지금 이와같은 회상을 하게 된 동기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1966년 설립된 후 30년만에 과학기술진흥센터를 세움으로써 국제회의를 자체건물에서 치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과학입국을 하겠다면서 학술발표·정보교환의 장인 국제회의의 시설이 부족하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여야 된다.

우리나라의 학회·학술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과학기술관련 대소국제회의 및 세미나가 1년에 1천5백회 가까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장소가 걸맞지 않은 곳에서, 행사가 치루어지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가까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면 「말레

이지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우수한 것을 알아야 된다.

또 관광객 한 사람이 TV 30대, 자동차 5대의 수출액보다 더 큰 외화를 남긴다는 면도 있지만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부가가치의 값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제회의의 유치는 우리나라의 문화·역사를 보여주고 또 관광을 통한 경제성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92년 베를린 총회에서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를 서울로 유치했을 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약 3천8백만달러(한화 3백억) 규모의 행사를 우리나라에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FDI는 3백억 규모 행사

세계치과의사연맹(Federation Dentaire Internationale)은 약자로 F.D.I.로 쓰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94개국 정회원국의 옵서버국을 포함, 195개국의 회원국으로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고 매년 한번씩 총회를 갖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영리단체로서 1900년 8월 15일 파리에서 설립되었고 유럽치과의사연맹,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라틴아메리카치과의사연맹, 아프리카연맹, 북아메리카연맹 등 5개의 지역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F.D.I.의 목적은 각 국가 및 국제단체들과 협력하고 최적의 임상진료를 위한 기준을 개발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최적의 구강위생상태를 이루도록 최선의 진료를 증진시킨다. 치과의술과 치의학의 발전을 시키며 모든 사람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국제프로그램을 수집, 장려한다.

간행물과 교육을 통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한다. 대중의 일반적인 건강과 구강위생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증진시킨다. 이 목적으로 F.D.I. 연차총회는 매년 회원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5년후 차기총회 개최지를 결정한다.

총회의 주요내용은 학술대회(세계적 권위자의 연설, 발표 등 4일간의 학술프로그램), 국제적인 기자회견

(TRADE SHOW)는 치의학관련 제품의 제공, 정보교환, 기술발전도모의 환경조성에 의미가 있고 각국 대표 사회의는 각국의 정보교환, 상호협력을 위한 기회로 제공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사교행사가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개요를 설명한 것은 이와 유사한 많은 국제회의를 접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들께 각 단체마다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작은 정보의 교환을 바라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1983년에 총회유치를 신청한지 거의 10년만인 92년에 서울총회가 1997년(제85차 F.D.I 서울)으로 결의되어 드디어 97년 9월5일부터 9월11일까지 KOEX에서 개최기로 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화 걸맞은 새 시설을

여기서 우리는 국제회의장(컨벤션센터)의 규모·효율성에 안타까움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컨벤션센터」는 한 나라의 얼굴이고 수준을 나타낸다고 나는 믿는다. 한번에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오고 가고 머물며 보고 배우고 느끼고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기능이 기본이라고 본다.

외부적으로는 공항에서의 거리, 교통시설, 도로로 갈 수 있는 곳의 호텔시설, 휴식공간, 대·중·소 회의실 시설의 유무를 기준으로 들 수 있겠고 내부적으로는 동시통역시설, 전시장시설, 식당, 은행, 우체국, 의무실 등과 함께 이와 같은 국제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술·능력정도 또한 어떠한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컨벤션센터」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소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둘 중에 하나라도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고 느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라는 말을 지나치게 듣는데 이에 우선순위의 하나가 컨벤션센터의 준비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컨벤션센터는 그 나라의 얼굴인 것이다. ①